

오행인 유형분류를 위한 기초연구

- <靈樞·陰陽二十五人>을 중심으로

한경숙·남동현·김태희·박영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생기능의학과학교실

[Abstract]

A Basic Study on the Pattern Distribution of Wuxíngrén [五行人]

Kyung-Sook Han, Tong-Hyun Nam, Tae-Hee Kim, Young-Bae Park

*Dept. of Biofunctional Medicine and Diagnosi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Background and Purpose:

The concept of Wuxíng(五行) is central to all elements of the Koran traditional medicine. And Wuxíng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onstitution theories in some of oriental medicine fields i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necessary and concrete estimation factors for distributing patterns of Wuxíngrén(五行人) respectively.

Methods:

We translated and summarized the records about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ng points of Wu-Xing Ren described in <Lingshu(靈樞)·Yin-Yáng èrshíwúrén(陰陽二十五人)>. Some review articles were identified through searches of KISS and KERIS databases.

Results and Conclusion:

Concret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ng points of Wu-Xing Ren were described in <Lingshu·Yin-Yáng èrshíwúrén>. According to <Lingshu·Yin-Yáng èrshíwúrén>, the most notable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ng points are the skin color and shape of face. but the skin color and shape of face are too ambiguous to be used as distributing criteria in a practical manner. In stead size of head, longitudinal length of back, disposition, and width between both shoulders may be used as distributing criteria in practical clinical fields.

Key Words: constitution, Wuxíng constitution, Wuxíngrén, Wuxíngzhìrén, Yin-Yáng èrshíwúrén

* 교신저자 : 박영배 / 소속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생기능의학과학교실

TEL : 02-958-9195 / E-mail : bmppark@khu.ac.kr

I. 緒 論

한의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內經』에서 언급되는 체질론은 <靈樞·通天>¹⁾에 陰陽氣의 多少에 따라 五態之人으로 분류한 것과 <靈樞·陰陽二十五人>²⁾에서 五形之人에서와 같이 음양오행으로 분류되는 체질과 肥瘦와 같이 체형에 따라 분류되는 체질, 勇怯·性情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³⁾. 음양오행학설은 한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지만 현재 임상에서 쓰이는 체질이론은 생리·병리적 특성을 음양오행학설에 기초를 둔 것보다는 사상체질 등과 같이 장부대소관계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더 많다³⁾.

음양오행과 관련된 기존의 체질연구를 살펴보면, 음양인에 관한 연구와 오행인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음양인에 관해서는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음양인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류한 이³⁾의 연구가 있었다. 오행인 연구로는 권⁴⁾과 장⁵⁾ 등의 연구와 같이 일반적인 오행속성에 따라 오행인을 나누거나, 장⁶⁾과 김⁷⁾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주나 운기에 따른 오행분류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장⁸⁾ 등은 <靈樞·陰陽二十五人>의 내용을 근거로 25체질을 분류하였으나 체형이나 성격적 특징이 아닌 질병 발현의 경락학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채⁹⁾는 체질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靈樞·陰陽二十五人>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靈樞·陰陽二十五人>의 원문내용에 근거하여 外形과 性情에 따라 오행인을 분류하려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선행된 연구가 모두 오행인 분류의 객관화 연구에 활용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현재 오행인 분류는 운기체질이란 형태로 운기 의학을 형성하여 한의학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¹⁰⁾. 중국에서는 陳言의 『三因方』에서 처음 운기에

따른 처방이 제시되어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영조 때 尹草隱이 처음 운기를 이용해 처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運氣寶鑑』, 『五運六氣寶鑑』 등의 운기처방체에 의존하여 운기의학이 활용되어왔다¹⁰⁾. 운기체질이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었던 기반은 운기체질이 되는 오행의 상생·상극 이론이 인체의 생리·병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운기체질에 따른 처방이 임상에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기 의학에서 사용되는 운기체질은 태어난 시기의 운과 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체질이 계산되어지는 원리를 자세히 알 수 없고, 다섯 가지인 오행인 분류를 다시 25가지 체질로 세밀하게 나누어 쓰임에 비해서 그 이론적인 기반이 명확치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임상에서 활용가치를 갖는 운기체질의 객관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25가지 운기체질의 기반이 되는 오행인의 유형분류를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행인 분류의 근거가 되는 고전인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 언급된 五形之人 즉,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을 기존의 연구와 달리 형이상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객관화 연구가 가능하도록 性情과 性情 부분에서 오행인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행인 유형분류의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로 <靈樞·陰陽二十五人>의 내용을 근거로 오행인의 性情·性情 특징과 유형간의 차이점을 요약·분석하고 앞으로 진행시켜야 할 오행인 분류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오행인 유형분류의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로 우선 <靈樞·陰陽二十五人>에 기술된 내용을 정리하여 오행인의 性情·性情 특징과 유형간의 차이점을 요약·분석하고 앞으로 진행시켜야 할 오행인 분류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을 제언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靈樞·陰陽二十五人>의 원문은 1982년 북경의 인민위생출판사에서 편한 『靈樞經校釋』¹¹⁾을 底本으로 하였다. 원문의 해석은 1994년 전통문화연구회에서 編한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¹²⁾를 중점적으로 참조 하였으며, 모호한 부분이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靈樞經校釋』과 1985년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에서 編한 『精校黃帝內經靈樞』¹³⁾의 주석을 참조하고, 채⁹⁾의 논문 중에 <靈樞·陰陽二十五人>에 관한 견해를 참조하였다.

오행인 연구와 관련된 자료는 주로 학회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사용된 검색엔진은 한국학술정보(<http://search.koreanstudies.net>)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4u.net>)이었다. 주된 검색어는 “오행인”, “오행체질”, “운기체질”이었다.

III. 본 론

음양오행이론은 한의학 체질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다. 음양오행과 관련된 체질론은 음양인에 관한 연구와 오행인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음양인에 관해서는 황제내경의 <靈樞·通天>¹⁾에 陰陽氣의 多少에 따라 五態之人으로 분류한 것이 있고, 이³⁾ 등이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음양인 유형을 분류한 연구가 있다. 오행인에 관

한 것은 황제내경의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 五形之人의 분류내용을 볼 수 있으나 오행인 분류의 객관화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는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에 관하여 구체적인 특징이 외형과 성격, 계절 등에 적용하면서의 차이 등으로 나뉘어져서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행인 분류의 근간을 이룬다. 본문에서는 먼저 <靈樞·陰陽二十五人> 全文의 내용을 살피고, 五形之人의 평가지표로 쓰일 수 있는 外形과 性情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따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1) <靈樞·陰陽二十五人>의 五形之人

<靈樞·陰陽二十五人>에 언급된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의 外形 특징과 性情 등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A. 木形之人

木形의 사람은 上角에 속하고 蒼帝와 같은데, 그 사람됨이 청색이고 머리가 작으며 얼굴이 길고 어깨와 등이 크며, 몸이 곧고 손발이 작다. 재주가 있고 勞心하기 좋아하며, 힘이 적고 일에 憂勞함이 많다. 봄·여름은 건디는데 가을·겨울을 견디지 못하여 感함에 병이 생긴다. 足厥陰이 佗佗然하다. 大角의 사람은 左足少陽에 속하는데 少陽의 上이 遺遺然하다. 左角의 사람은 右足少陽에 속하는데 少陽의 下가 隨隨然하다. 鈇角의 사람은 右足少陽에 속하는데 少陽의 上이 推推然하다. 判角의 사람은 左足少陽에 속하는데 少陽의 下가 括括然하다.

[原文] 木形之人, 比¹⁾於上角, 似於蒼帝, 其爲人

1) 『靈樞經校釋』의 註解를 보면 比類의 뜻으로 <類經>에서는 “比, 屬也”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속하다’나 ‘해당된다’의 의미로 보았다. 이후에 원문에

蒼色, 小頭, 長面, 大肩背, 直身²⁾, 小手足, 有才, 好勞心, 少力³⁾, 多憂勞于事. 能春夏不能秋冬, 感而病生, 足厥陰佗佗然. 大角之人, 比於左足少陽, 少陽之上遺遺然. 左角之人, 比於右足少陽, 少陽之下隨隨然. 鈇角之人, 比於右足少陽, 少陽之上推推然. 判角之人, 比於左足少陽, 少陽之下栝栝然.

B. 火形之人

火形의 사람은 上徵에 속하고 赤帝와 같다. 그 사람됨이 적색이고, 잇몸이 넓게 드러나고 얼굴이 뾰족하고 머리가 작고 어깨·등·넓적다리·배가 좋고 수족이 작으며, 行함에 安地하고 성질이 급하여 다니는데 몸이 흔들리고 어깨와 등에 살집이 많다.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기질이 있고 信이 적고 慮가 많고 사물을 보는 것이 밝고 顔이 좋고 마음이 급하며 壽하지 못하고 暴死한다. 봄과 여름에 견디고 가을·겨울에는 견디지 못하여 가을·겨울에 感하여 병이 생긴다. 手少陰이 核核然한다. 質徵의 사람은 左手太陽에 속하며 太陽의 上이 肌肌然한다. 少徵의 사람은 左手太陽에 속하며 太陽의 下가 惛惛然한다. 右徵의 사람은 右手太陽에 속하며 太陽의 上이 皦皦然한다. 質判의 사람은 左手太陽에 속하며 太陽의 下가 支支頤頤然한다.

[原文] 火形之人, 比於上徵, 似於赤帝. 其爲人赤色, 廣胛⁴⁾, 銳面小頭, 好肩背腓腹, 小手足, 行安地,

나오는 ‘比’의 의미도 동일하다.

- 2) 특별한 註解는 없다.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에서는 ‘몸이 끈고.....’라고 보았다.
- 3) 특별한 註解가 없다. 晁³⁾의 견해에 따라 여기서는 ‘有才’는 재능이 있는 것으로, ‘勞心’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小力’은 힘이 적다는 의미보다는 실천력이 적다는 의미로 보았다.
- 4) 『靈樞經校釋』의 註解를 보면 ‘胛’을 周本에서는 ‘矧’으로 되어있다고 하여 ‘齒本’의 의미로 보아 ‘廣胛’을 ‘잇뿌리(잇몸)가 넓게 드러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晁³⁾의 경우 ‘胛’를 그대로 脊肉으로 해석

疾心⁵⁾, 行搖, 肩背肉滿, 有氣輕財⁶⁾, 少信, 多慮, 見事明, 好顏⁷⁾, 急心, 不壽暴死. 能春夏不能秋冬, 秋冬感而病生, 手少陰核核然. 質徵之人, 比於左手太陽, 太陽之上肌肌然. 少徵之人, 比於左手太陽, 太陽之下惛惛然. 右徵之人, 比於右手太陽, 太陽之上皦皦然. 質判之人, 比於左手太陽, 太陽之下支支頤頤然.

C. 土形之人

土形의 사람은 上宮에 속하며 上古黃帝와 같다. 그 사람됨은 黃色이고, 얼굴이 둥글고 머리가 크고 어깨와 등이 아름답고, 배가 크고 넓적다리와 정강이가 아름답고, 손발이 작고 살집이 많다. 上下가 相稱하고 行함에 安地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신용할만하고 安心하고 남을 이롭게 하길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 친근하길 잘한다. 가을·겨울에 견디고 봄·여름에는 잘 견디지 못하고 봄·여름에 感하여 병이 생기는데 足太陰이 敦敦然한다. 太宮의 사람은 左足陽明에 속하는데 陽明의 上이 婉婉然하다. 加宮의 사람은 左足陽明에 속하는데 陽明의 下가 坎坎然한다. 少宮의 사람은 右足陽明에 속하는데 陽明의 上이 樞樞然한다. 左宮의 사람은 右足陽明에 속하는데 陽明의 下가 兀兀然한다.

[原文] 土形之人, 比於上宮, 似於上古黃帝. 其爲

하고 있으나 『靈樞經校釋』의 註解로 볼 때 이것은 잇몸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 5) 특별한 註解는 없다.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에서는 ‘성질이 급하다’고 하였다.
- 6) 특별한 註解는 없다.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에서는 ‘財(物)를 경시 여기는 氣(質)이 있고’라고 하였다.
- 7) 특별한 註解는 없다.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에서는 ‘顔이 좋다’고 하였으나 얼굴빛이 좋다는 의미인지 잘 생겼다는 의미인지, 염치가 좋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 내용상 해석이 모호하여 뒤에 성정부분을 정리하면서 내용을 누락시켰다.

人黃色, 圓面, 大頭, 美肩背, 大腹, 美⁸⁾股脛, 小手足, 多肉, 上下相稱, 行安地, 舉足浮⁹⁾, 安心, 好利人, 不喜權勢, 善附人也. 能秋冬 不能春夏, 春夏感而病生, 足太陰敦敦然. 大宮之人, 比於左足陽明, 陽明之上婉婉然. 加宮之人, 比於左足陽明, 陽明之下坎坎然. 少宮之人比於右足陽明, 陽明之上樞樞然. 左宮之人, 比於右足陽明, 陽明之下兀兀然.

D. 金形之人

金形の 사람은 上商에 속하는데 白帝와 같다. 그 사람됨은 네모진 얼굴에 白色이며, 머리가 작고 어깨와 등이 작고, 배가 작고 손발이 작다. 骨이 踵外로 나온 듯하고 骨이 가벼우며 몸이 清廉하며, 마음이 급하여 靜悍하며, 벼슬아치로 다스리는 것을 잘한다. 가을·겨울은 견디고 봄·여름은 견디지 못하며 봄·여름에 感하여 병이 생긴다. 手太陰이 敦敦然한다. 欽商의 사람은 左手陽明에 속하며 陽明의 上이 廉廉然한다. 左商의 사람은 左手陽明에 속하며 陽明의 下가 脫脫然한다. 右商의 사람은 右手陽明에 속하며 陽明의 上이 監監然한다. 少商의 사람은 右手陽明에 속하며 陽明의 下가 嚴嚴然한다.

[原文] 金形之人, 比於上商, 似於白帝. 其爲人方面¹⁰⁾, 白色, 小頭, 小肩背, 小腹, 小手足, 如骨發踵外¹¹⁾, 骨輕. 身清廉, 急心, 靜悍, 善爲吏¹²⁾, 能秋冬

8) 『靈樞經校釋』의 註解를 보면 <甲乙經>에서는 ‘好’로 되어 있다고 한다. 위에 ‘美肩背’ 역시 ‘美’를 좋다는 의미로 보았다.

9) 『靈樞經校釋』의 註解를 보면 ‘浮’를 ‘孚’로 봐야 하며, ‘孚’는 ‘信’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行사가 충분히 신용할 만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0) 특별한 註解는 없다.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에서는 ‘方面’을 ‘네모진 얼굴’이라고 하였다.

11) 특별한 註解는 없다.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에서는 ‘骨이 踵外로 發한 듯하고’라고 보았는데 의미가 분명치 않아 뒤에 기타 특징부분을 정리하면서 누락시켰다.

不能春夏, 春夏感而病生, 手太陰敦敦然. 欽商之人, 比於左手陽明, 陽明之上廉廉然. 左商之人, 比於左手陽明, 陽明之下脫脫然. 右商之人, 比於右手陽明, 陽明之上監監然. 少商之人, 比於右手陽明, 陽明之下嚴嚴然.

E. 水形之人

水形の 사람은 上羽에 속하며 黑帝와 같다. 그 사람됨은 黑色이고 얼굴이 평평하지 않고 머리가 크고 턱이 넓으며 어깨가 작고 배가 크며 손발이 動하며 發行함에 몸을 흔든다. 下尻가 길고 등이 길고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잘 속여 戮死한다. 가을·겨울에 견디고 봄·여름에 견디지 못하고 봄·여름에 感하여 병이 생긴다. 足少陰이 汗汗然한다. 大羽의 사람은 右足太陽에 속하며 太陽의 上이 頰頰然한다. 少羽의 사람은 左足太陽에 속하며 太陽의 下가 紆紆然한다. 衆之의 사람은 右足太陽에 속하며 太陽의 下가 潔潔然한다. 桎之의 사람은 左足太陽에 속하며 太陽의 上이 安安然한다.

[原文] 水形之人, 比於上羽, 似於黑帝. 其爲人黑色, 面不平, 大頭, 廣頤, 小肩, 大腹, 動手足, 發行搖身, 下尻長, 背延延然¹³⁾, 不敬畏, 善欺給人, 戮死, 能秋冬不能春夏, 春夏感而病生, 足少陰汗汗然. 大羽之人, 比於右足太陽, 太陽之上頰頰然. 少羽之人, 比於左足太陽, 太陽之下紆紆然. 衆之爲人, 比於右足太陽, 太陽之下潔潔然. 桎之爲人, 比於左足太陽, 太陽之上安安然. 是故五形之人二十五變者, 衆之所以相欺者是也.

12) 『靈樞經校釋』의 註解를 보면 <千金>에서 ‘性喜爲吏治’라고 하였다.

13) 체⁹⁾는 ‘下尻長, 背延延然’을 ‘엉덩이가 길고 등이 역시 길다’고 보았다.

(2) 오행인 유형분류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는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에 관한 구체적인 특징이 외형과 성격, 계절 등에 적용하면서 차이 등으로 나뉘어져서 언급되어 있다. 五形之人의 특징을 외형적 측면과 성격적 측면에서 차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 木形之人

피부는 청색을 띠며 머리는 작고 얼굴이 길다. 어깨 폭이 넓고 등이 크고 곧으며 손발이 작다. 성격은 재주가 있고 신경을 많이 쓰나 실천력은 적다.

B. 火形之人

피부는 적색을 띠며 잇몸이 넓게 드러나고 머리는 작고 얼굴이 뾰족하게 나온 편이다. 어깨, 등, 허리, 배의 살집이 좋고 손발이 작다. 다니는 것이 안정되게 다니고 성격이 급하고 어깨를 흔들면서 다닌다. 어깨와 등에 살집이 많다.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기질이 있고, 신의가 적고 생각이 많고 사물을 보는 것이 밝고 마음이 급하다.

C. 土形之人

피부는 황색을 띠며 얼굴은 둥글고 머리가 크다. 어깨에서 등에 살집이 있고, 배가 크다. 다리에 적당한 살집이 있고 손발이 작고 살집이 많다. 상하가 서로 균형있고 다니는 것이 안정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믿음직하다. 남을 위해 일을 하길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지 않고 사람과 잘 어울린다.

D. 金形之人

피부는 백색을 띠고 얼굴은 네모진 형에 머리는 작고 어깨와 등이 좁다. 배가 작고 손발이 작다. 골격이 가볍다. 몸이 청렴하고 마음이 급하며 조용한 듯 빠르고 벼슬아치로 다스리는 것을 잘 한다.

표 1. <靈樞·陰陽二十五人>에 근거한 오행인의 外形·性情 차이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
피부색	청	적	황	백	흑
머리	작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얼굴	길다	뾰족하다	둥글다	사각형	평평하지 않음
어깨	크다	살집이 좋다	살집이 좋다	작다	작다
등	크다	살집이 좋다	살집이 좋다	작다	길다
배	.	살집이 좋다	크다	작다	크다
손·발	작다	작다	작고 통통하다	작다	.
성격	신경을 많이 쓰나 실천력은 적다	생각이 많고 조금하다. 돈을 가볍게 여기고 사물에 밝다 신의가 적다	사람과 잘 어울린다. 남을 이롭게 하기를 좋아하고, 믿음직하고, 권세를 싫어한다	청렴하고 마음이 급하며 조용하면서 빠르다. 벼슬아치로 다스리는 것을 잘 한다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는 것이 없다. 사람을 잘 속인다
특징	.	잇몸이 넓게 드러난다	.	골격이 가볍다	턱이 넓고, 엉덩이가 길고, 손발을 잘 떨고 움직이면서 몸을 흔든다

E. 水形之人

피부는 검고 얼굴이 평평하지 않고 머리가 크고 턱이 넓다. 어깨가 작고 배는 크며, 엉덩이가 길고 등이 역시 길다. 손발을 움직이며 다닐 때 몸을 흔든다.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잘 속인다.

F. 五形之인의 특징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五形之인의 차이를 외형과 성격적 면에 중점을 두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오행인 분류지표

<靈樞·陰陽二十五人>의 내용에 기인하여 임상에서 체질을 구분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머리 크기, 손발의 크기, 얼굴형과 얼굴색, 어깨·등과 배

크기, 성정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내용을 임상에서 오행인 분류에 쓰일 수 있는 지표와 측정 상한계를 갖으나 체질 분류상 고려가능한 지표로 구분하여 표 2, 표 3으로 나타내었다.

A. 머리 크기

목·화·금형지인은 작고, 토·수형지인은 크다는 명확한 차이를 지니므로 유형을 구분하는 평가지표로 쓰일 수 있다.

B. 손발 크기

목·화·토·금형지인이 모두 작고 수형지인은 언급된 내용이 없어서 평가지표로 쓰이기 힘들다.

C. 얼굴색과 얼굴모양

얼굴색은 五形之人이 모두 다르지만 얼굴의 색

표 2. 오행인 분류를 위한 평가지표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
머리	작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어깨	크다	살집이 좋다	살집이 좋다	작다	작다
등	크다	살집이 좋다	살집이 좋다	작다	길다
성정	신경을 많이 쓰나 실천력은 적다	생각이 많고 조급하다. 돈을 가볍게 여기고 사물에 밝다 신의가 적다	사람과 잘 어울 린다. 남을 이롭게 하기를 좋아하고, 믿음직하고, 권세를 싫어한다	청렴하고 마음이 급하며 조용하면서 빠르다. 벼슬아치로 다스리는 것을 잘 한다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는 것이 없다. 사람을 잘 속인다

표 3. 측정 상 한계를 갖으나 오행인 분류에 고려될 수 있는 평가지표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
피부색	청	적	황	백	흑
얼굴	길다	뽀족하다	둥글다	사각형	평평하지 않음
특징	.	잇몸이 넓게 드러난 다	.	골격이 가볍다	턱이 넓고, 엉덩이 가 길고, 손발을 잘 떨고 움직이면서 몸 을 흔든다

택을 측정한다는 것은 조명상태와 측정부위에 따른 오차가 많아서 측정상의 문제로 입상에서 체질의 평가지표로 쓰이는데 한계를 지닌다. 얼굴모양은 얼굴색과 마찬가지로 五形之人이 모두 다르지만 목형지인은 얼굴이 길고, 화형지인은 얼굴이 뾰족해서 비슷한 유형이 되고, 토형지인은 얼굴이 둥글고, 수형지인은 얼굴이 편평하지 않고 곡선형이며, 금형지인은 네모난 형이라고 해서 이 세 유형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D. 등과 배 크기

각 체질 유형 안에서 등과 배 크기와 관련된 내용이 비슷해서 등 길이나 등 크기만 재거나 배 크기만을 가지고 구분을 해도 좋으나 목형지인에서 배 크기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아서 등 크기와 등 길이를 측정지표로 활용하고 배 크기는 배제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E. 性情

오형지인이 모두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목형지인은 근심이 많고 힘이 약한 특징을 갖는다. 화형지인은 조급하고 사리에 밝고 생각이 많지만 돈을 가볍게 여기고 신의가 적다. 토형지인은 친근한 성격이라 사람과 잘 어울리고 남을 이롭게 하기 좋아하고 권세를 싫어하고 믿음직하다. 금형지인은 청렴하고 마음이 급해서 조용한 듯 빠르고 남을 다스리는 것을 잘 한다. 수형지인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적고 사람을 잘 속인다는 특징이 있다. 性情에 있어 五形之人의 특성이 서로 다른 부분이 확연하므로 性情은 外形지표와 함께 五形之人의 유형 평가지표로 쓰일 수 있다.

IV. 고찰

체질이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개체의 종합적인 형질로 신체의 형태나 기능에 대해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전체론적인 성상이다¹⁴⁾. 체질은 개체의 특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을 보조하여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체질에 대하여 최¹⁵⁾는 유전적 선천적으로 형성되며 그 기능 형태 및 심리적으로 표현되는 비교적 안정된 개체의 특성이라고 보았고, 윤¹⁶⁾은 체형에 기능을 결부시킨 것으로 유전적 체질의 형성요소와 풍토·영양·질병 등 생활환경적 영향이 합치되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大里¹⁷⁾는 체질을 개체의 해부적 생리적 심리적 체증상의 유기적 총체이며 장기간 지속하는 특성으로 보고 체질 안에 기능적인 면과 형태학적인 면의 양자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Siebeck¹⁸⁾은 체질을 개체 활동 능력과 적응능력을 지배하는 반응준비자세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장 등⁸⁾은 체질에서 유전적인 부분과 생활환경적인 부분의 영향을 구분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유형체질(類型體質)과 후천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적 체질론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체질은 형체에 기능을 결부한 것으로 유전적 체질의 구성요소와 생활환경적 영향이 합하여 형성되는 것이나, 유형체질은 생활환경적인 면을 제외한 유전적인 체형, 기능, 감정을 총화한 신체정신적인 형질의 합치점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다양한 체질의 정의를 살펴보면, 체질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포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19,20)}. 첫째가 선천적인 유전적요인과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의 상호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체질의 발현에 있어서 체질은 외형적인 요소인 체형(體態)과 정신과 성

격, 정서적인 면모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규정된 체질에서 규율을 갖고 전개되는 생리·병리적인 현상이 존재하며 이러한 가변적인 면에서도 그 체질만의 특이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정리하여 체질의 의미를 정리하면, 체질이란 선적적인 면과 후천적인 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개체의 형체, 정신, 생리, 병리적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에서 체질에 관한 연구는 고대 서양의 Hippocrates의 사체액설, Pavlov의 유형이론을 비롯해서 동양에서는 『內經』의 체질분류를 기점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¹⁹⁾. 한국에서의 체질 연구는 체질의 분류와 체질의 기초이론 측면이 강조 되어서 독특한 체질의학이 발달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체질의학의 기본 틀을 형성하면서 한의학만의 고유한 학문적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팔체질의학과 운기의학에서도 고유한 체질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체질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체질의 특성이나 진단요건(평가지표)을 객관적으로 평가·판단하기 위한 객관화 연구^{3,21,22)}이고 둘째는 체질의 정의나 생리·병리적 특징에 관한 의사학적인 연구^{2,23)}이며 셋째는 체질이론을 임상에 활용한 응용연구^{24,25)}이다. 체질에 관련된 연구는 체형에 관련된 연구^{26,27)}가 많았고, 일부에서는 고대 서양의 Hippocrates의 사체액설²⁶⁾, 이제마의 사상체질, <內經>을 근거한 음양오행체질 등 체질이론을 근거로 한 체질의 연구가 진행되었다^{29,23)}. 한국에서 진행된 기존의 체질연구 대다수는 사상체질에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며, 일부에서는 <靈樞·陰陽二十五人>, <靈樞·通天>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음양·오행체질이 연구되고 있었다^{3,7,8)}.

한의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內經』에서 언급되는 체질론은 <靈樞·通天>¹⁾에 陰陽氣의 多少에 따

라 五態之人으로 분류한 것과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 五形之人에서와 같이 음양오행으로 분류되는 체질과 肥瘦와 같이 체형에 따라 분류되는 체질, 勇怯·性情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한다²⁾. 음양오행이론은 한의학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지만 현재 임상에서 쓰이는 체질이론은 생리·병리적 특성을 음양오행이론에 기초를 둔 것보다는 사상체질 등과 같이 장부대소 관계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더 많다³⁾.

체질론 중 음양오행으로 분류되는 체질론을 살펴보면 음양인에 관한 연구는 이³⁾의 연구에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음양인 유형을 분류한 객관화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정작 오행에 근거를 두고 분류되는 체질이론은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 언급되어진 五形之人의 내용에 근거를 두기 보다는 권⁴⁾과 장⁵⁾ 등의 연구와 같이 일반적인 오행속성에 따라 오행체질을 나누거나, 장⁶⁾과 김⁷⁾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주나 운기에 따른 오행 분류 형태임을 볼 수 있다. 권⁴⁾은 오행의 속성과 生·剋·乘·侮 이론에 따라 오행인의 속성과 인간관계론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장 등⁵⁾은 오행속성에 따라 체질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것의 공학적인 활용 방법을 연구하였다. 장 등⁶⁾은 사주에서 비롯되는 오행체질과 음식섭생과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김⁷⁾은 운기학설의 의학방면 응용을 언급하면서 운기체질이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 언급되는 五形之人과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장 등⁸⁾은 <靈樞·陰陽二十五人>의 내용을 분석하여 陰陽二十五人의 체질분류 기준과 임상적 활용가치를 정리하였다. <靈樞·陰陽二十五人>의 내용을 근거로 25체질을 분류하였으나 체형이나 성격적 특징이 아닌 질병 발현의 경락학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채⁹⁾는 체질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靈樞·陰陽二十五人>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오행인에 관련된 이러한

연구는 모두 종설적 연구이고, <靈樞·陰陽二十五人>의 원문내용에 충실히 근거하여 外形과 性情에 따라 오행인을 분류하려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선행된 연구가 모두 오행인 분류의 객관화 연구에 그대로 활용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현재 오행인 분류는 운기체질이란 형태로 운기의학을 형성하여 한의학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¹⁰⁾. 중국에서는 陳言의 『三因方』에서 처음 운기에 따른 처방이 제시되어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영조 때 尹草廳이 처음 운기를 이용해 처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運氣寶鑑』, 『五運六氣寶鑑』 등의 운기처방책에 의존하여 운기의학이 활용되어왔다^{7,10)}. 운기체질이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었던 기반은 운기체질이 되는 오행의 상생·상극 이론이 인체의 생리·병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운기체질에 따른 처방이 임상에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¹⁰⁾. 하지만 운기체질에서 사용되는 체질은 태어난 시기의 운과 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계산되어지는 원리를 자세히 알 수 없고, 다섯 가지인 오행인 분류를 다시 25가지 체질로 세밀하게 나뉘어 쓰임에 비해서 그 이론적인 기반이 명확치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는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에 관한 구체적인 특징이 외형과 성격, 계절에 적응하면서의 차이 등으로 나뉘어져서 언급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五形之人의 특징을 외형적 측면과 성격적 측면에서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靈樞·陰陽二十五人>의 내용에 기인하여 임상에서 체질을 구분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머리 크기, 손발의 크기, 얼굴형과 얼굴색, 어깨·등과 배 크기, 성정 등으로 나누었다. 五形之人의 차이로 볼 때 외형만 가지고 五形之人의 구분을 하는 것에는 한계를 지니

고 外形과 性情을 같이 분석하여 오행인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배 크기와 손·발 크기는 측정지표로 쓰이기 어렵고, 피부색과 얼굴형은 측정 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 많아 한계가 있다. 머리 크기와 등 크기와 길이, 어깨 크기, 性情 등은 五形之人의 유형을 구분하는 측정지표로 활용가능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오행인 유형분류의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로 <靈樞·陰陽二十五人>의 내용을 근거로 오행인의 體形·性情 특징과 서로간의 차이점을 요약·분석하고 앞으로 진행시켜야 할 오행인 분류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는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에 관한 구체적인 특징이 외형과 성격, 계절 등에 적용하면서의 차이 등으로 나뉘어져서 언급되어 있다.
木形之人은 피부가 청색을 띠며 머리는 작고 얼굴이 길다. 어깨 폭이 넓고 등이 크고 곧으며 손발이 작다. 성격은 재주가 있고 신경을 많이 쓰나 실천력은 적다.
火形之人은 피부가 적색을 띠며 잇몸이 넓게 드러나고 머리는 작고 얼굴이 뾰족하게 나온 편이다. 어깨, 등, 허리, 배의 살집이 좋고 손발이 작다. 다니는 것이 안정되게 다니고 성격이 급하고 어깨를 흔들면서 다닌다. 어깨와 등에 살집이 많다.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기질이 있고, 신의가 적고 생각이 많고 사물을 보는 것이 밝고 마음이 급하다.
土形之人은 피부가 황색을 띠며 얼굴은 등

클고 머리가 크다. 어깨에서 등에 살집이 있고, 배가 크다. 다리에 적당한 살집이 있고 손발이 작고 살집이 많다. 상하가 서로 균형있고 다니는 것이 안정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믿음직하다. 남을 위해 일을 하길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지 않고 사람과 잘 어울린다. 金形之人은 피부가 백색을 띠고 얼굴은 네모진 형에 머리는 작고 어깨와 등이 좁다. 배가 작고 손발이 작다. 골격이 가볍다. 몸이 청렴하고 마음이 급하며 조용한 듯 빠르고 벼슬아치로 다스리는 것을 잘한다.

水形之人은 피부는 검고 얼굴이 평평하지 않고 머리가 크고 턱이 넓다. 어깨가 작고 배는 크며, 엉덩이가 길고 등이 길다. 손발을 움직이며 다닐 때 몸을 흔든다. 공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잘 속인다.

2. 五形之人의 차이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구분은 피부색과 얼굴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 피부색과 얼굴형이 등글고, 길고, 각지고 하는 미묘한 차이를 측정하는 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한계를 갖기에 안색과 얼굴형 측정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머리 크기는 木·火·金形之人은 작고, 土·水形之人은 크다는 명확한 차이를 지니므로 유형을 구분하는 평가지표로 쓰일 수 있다.
4. 손발의 크기는 木·火·土·金形之人이 모두 작고 水形之人은 언급된 내용이 없어서 평가지표로 쓰이기 한계가 있다.
5. 등과 배 크기를 보면 각 五形之人이 등과 배 크기와 관련된 내용이 비슷해서 등 길이·크기 혹은 배 크기만을 가지고 구분을 해도 좋으나 木形之人에서 배 크기에 관한 명확한 제시가 없어서 배 크기는 배제하고 등 크기와 등 길이를 측정지표로 활용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6. 어깨 크기는 木形之人은 크고, 火·土形之人은 살집이 있어서 크다는 의미와 유사하고, 金·水形之人은 작기 때문에 측정지표로 활용가능하다.
7. 性情에 있어서 五形之人이 모두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性情은 오행인 유형을 구분하는 평가지표로 활용가능하다.

참고문헌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74-281, 302-304.
2. 周素娥 외 1인. <<內經>>體質學說探源. 廣西中醫藥. 1994; 17(5): 36.
3. 이상범 외 2인. 음양인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3.
4. 권영찬. 오행인의 인간관계론. 서울, 한국행정학회 97년 동계논문집. 1997, 433-452.
5. 장동순 외 3명. 음양오행의 공학적 해석에 의한 체질분류 및 섭생법. 충남대학교 환경연구. 1997; Vol.15: 139-149.
6. 장동형 외 4인. 오행체질과 의역학. 한국정신과학 학술대회 논문집. 2002; Vol.16: 29-39.
7. 김기욱. 운기학설의 이론 및 운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8. 장신명, 임진석. <<靈樞·陰陽二十五人>>의 체질론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8; Vol 11(2): 136-144.
9. 채인식. 체질의학의 연구. 경희대학교 논문집. 1969; Vol.6: 393-422.
10. 박영배, 김태희. 運氣醫學 - 운기의학의 임상적 응용과 오행체질 해설. 정보사, 2005, 17-20.
11.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下). 人民衛生出

- 版社, 1982, 198-224.
12. 홍원식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傳統文化
研究會, 1994, 412-424.
 13. 홍원식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
究會 出版部, 1985, 274-281.
 14.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CD.
 15. 최승훈. <<황제내경>>의 체질론. 동의병리학회
지. 1992; Vol.7: 81-92.
 16. 尹吉榮. 四象體質醫學論. 한얼문고, 서울, 1973, 19.
 17. 大里太郎, 일본내과학술지, 일본, 1952; 29: 331.
 18. Siebeck, R : Lehrb. d. inn. Med. Bd. II. 699(1939).
 19. 中醫體質學說的研究. 國家中醫藥管理局編, 中
醫古籍出版社出版, 1989, 109-111.
 20. 한의진단명과 진단요건의 표준화연구(I). 한국
한의학연구소 기초이론연구실, 한국, 1995, p10-14.
 21. 김승모, 박재현. 체질별 생체전기 자율반응 측
정기에 대한 반응 고찰. 동서의학. Vol.25(1):
34-47.
 22. 김광호 외 3인. TAS-20K를 이용한 사상체질
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2000; Vol.11(2): 113-122.
 23. 최승훈. <황제내경>의 체질론 (한의학의 체질
론에 관한 연구). 동의병리학회지. 1997; Vol.7:
81-92.
 24. 채상진 외 3인.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체질
침과 체침에 의한 자각적 통증감소 비교. 대
한침구학회지. 2001; Vol.18(3): 48-55.
 25. 홍명주, 이인선. 동의대 부속한방병원 부인과
외래환자의 사상체질의학적 분석. 대한한방부
인과학회지. 2001; Vol.14(1): 336-354.
 26. Valentina Zaitseva, Valentine Son'kin. Stati-
stical and physiological distinction of con-
stitution types. J Pysiol Anthropol Appl
Human Sci. 2005; 24: 327-331.
 27. Marina A. Negasheva, T. A. Mishkova. Mor-

phofunctional parameters and adaptation ca-
pabilities of stu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third millennium. J Pysiol Anthropol Appl
Human Sci. 2005; 24: 397-402.